



3월 1일 찾은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이날에만 195명의 어르신들이 다녀갔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3월 2일 마지막 급식을 진행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한 어르신이 식사 전 부처님께 합장 삼배를 하고 있다.



3월 1일 찾은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의 밖 풍경. 연중 무휴 운영했던 급식소에는 평균 150명 이상이 찾아 배식 시작 전부터 장사진을 이룬다.



배식 봉사를 진행하던 보리 스님의 모습. 지금은 투병중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장 오래 봉사를 진행한 강영순(75) 씨가 나가 는 어르신들에게 글과 떡을 주고 있다.

탑골 무료급식 22년, 역사의 뒤편길로

활동 마무리하는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탑골공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커다란 노인정이다. 무료 지하철을 타고 나와 탑골공원과 조계사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2000~3000원 대의 저렴한 식당과 이발소 등이 공원 인근에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어르신들은 탑골공원 인근 골목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원각사'로 모여든다. 매일 낮 12시 무료 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많이 들린다는 3월 1일에 찾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는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어르신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낮 12시 무료급식이 시작되자 원각사 법당은 곧 어르신들의 차지가 됐다.

이날 메뉴는 비빔밥. 봉사자들이 수북이 밥을 퍼 그릇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드리면 이들은 이내 자리를 잡고 맛있게 비벼 먹는다. 땀 뚝뚝에 가득한 고봉밥도 모자라 "더 달라"고 성화인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 8년째 이곳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한 어르신은 "서울 사대문 안에 이 정도 수준의 밥을 매일 무료로 주는 곳은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날 봉사는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봉사자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모두 순수하게 봉사가 좋아 원각사 무료급식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배식 봉사 이외에도 질서 정리, 설거지 등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한다.

문 닫는 노인 포교 전진기지

이렇게 22년째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던 자비와 온정의 원각사 무료 급식은 3월 2일로 마무리됐다. 무료 급식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을 책임 졌던 주지 보리 스님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현재 임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임대차 만료도 3월 8일부터 끝난다.

보리 스님이 무료 급식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포교의 일환이었다. 1993년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새겨진 경구의 의미를 알리려던 보리 스님은 공원 인근에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을 발견했다. 곧 스님은 탁발을 시작했고, 모인 시주금으로 노인들에게 빵을 사서 대접했다.

봉사자들이 한두 명씩 무료 배식에 동참하면서 일주일에 이들은 국수를 삶아 배식하기 시작했고, 1998년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으로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월세로 건물 2층을 구해 법당을 만들어 지금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원각사에는 평균 100~150명, 휴일 250~300명의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다. 일주일 평균 1000~1350명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5만~7만 명에 이른다. 보리 스님은 20여 년을 매일같이 해왔으니 1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이 같은 무료급식은 정부 지원없이 기부금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사팀은 30여개. 스님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어렵게 무료배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동참했고 이 중에는 불자 법조인들의 모임인 '서초반야회'도 있다.

봉사자들은 매일 1회 정해진 날에 와 주지 스님의



원각사 무료급식소 외관. 주지 보리 스님의 원력으로 22년 동안 무료급식이 진행됐다.

3월 1일 급식 현장 가보니

195명 노인 땀땀이 장사진

50대에 봉사 시작한 보살은

이제 노구 이끌고 현장 지휘

주지 보리 스님 건강 악화로

3월 2일로 마지막 급식 진행

자비 온정 담겨진 밥 한그릇

어르신 허기·마음 달랜 쉽터

"이제 어디 가야하나" 한숨만

법문을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1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들도 상당수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곳

스님의 원력과 봉사자들의 마음이 합쳐져 20년 무료급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봉사자 중에는 초창기부터 20년동안 매일 봉사를 해 온 터줏대감도 있다. 1일 봉사 현장에서 만난 강영순(75) 씨가 대표적인 봉사자다.

강 씨는 "스님이 공원에서 빵 나눠줄 때부터 같이 봉사를 했다. 당시 나이가 50대였는데 이제 나 역시 70대 노인이 됐다"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봉사하면서 잊으려고 했다. 봉사가 있어서 힘든 일을 견디고 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 씨는 "공식적 급식 봉사는 3월 2일까지다. 지금 감정을 말하자면 아쉽고 허무하다"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라고 끝말을 흐렸다.

번호표 발급 및 회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신원창(80) 씨는 원각사 무료급식을 먹으러 왔다가 봉사자가 됐다.

5년 동안 매일 나와 봉사하는 신 씨는 급식소의 수문장이자 가장 성실한 봉사자 중 한 명이다. 오전 7시엔 원각사로 와서 국거리를 만들고 반찬 준비를 하고 쌀을 씻어 놓는다. 급식이 시작되면 외부 질서 정리를 도맡는다. 80세 어르신에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습관이 돼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신 씨는 "밥 먹으러 왔는데 매번 그냥 가기 미안해서 봉사를 시작했다"면서 "5년을 하루 같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좋은 소일이었고 실제 보람도 많았다.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2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은 매일 밥을 먹었던 어르신들

도 마찬가지다. 인근에 개신교계의 천사 급식소가 있지만 목, 금, 토요일에만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은 소정의 식사비를 받는다. 또한 명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아 언제 어느 때나 점심시간에만 맞춰오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영근(80) 씨는 "거의 매일 들렀다. 오늘도 잘 먹고 간다"면서 "이곳이 없어지면 노인들이 갈 곳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진배없다. 스님이 빨리 쾌차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연(71) 씨는 "원각사에서 밥 먹고 공원에서 쉬다가 집에 가는 것이 일과였다"면서 "때때로 인근 복지관에도 가지만 돈을 받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원각사는 단순히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좋은 쉼터였다"고 평가했다.

원각사 주지 스님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노인들을 22년동안 무료로 대접하는 것이 쉬운 줄 아느냐"고 되물은 유진영(74) 씨는 "스님은 빈 목탁을 친 것이 아니라 공덕 회향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우리 노인들을 '희망'이라고 했고, 합장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내 뜰해졌다. 3월 1일 다녀간 어르신들은 모두 195명이었다. 이날은 특별히 떡과 굴이 후식으로 제공됐다. 반이기는 어르신들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딱까지 있네. 언제 다시 오누"라고 아쉬워했다.

원각사를 뒤로 하고 나오니 탑골공원에서 한바탕 농악마당이 펼쳐졌다. 어르신들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사찰 봉사단체에서 사용하는 소형 트랙에 새겨진 문구가 눈을 사로잡는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어 구제공덕하였는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www.withbuddha.co.kr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